

북클럽 운영보고서1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장 소 : 줌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20대 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약자는 아니지만 차별받고 있다 - 2장. 부유하는 심판자들 - 3장. “그런 게 페미라면 난 페미야” 							
	<p>[토의 내용 요약]</p> <p>각자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싶은지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와서 토론하였음. 내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엇이 혐오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됨. 또한 20대 정체성과 세대론 담론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음.</p> <p>[토의 내용]</p> <p>Q1. 여성/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친구와 관계가 변화된 적이 있는가</p> <p>아*) 경우가 그때 그때 달랐다. 나한테 왜 임신 컨셉을 한 여자 아이들은 없는 것이냐며 낄낄대는 남자 선배의 연락은 그 선배가 졸업하자마자 끊어냈다. 난 그때 그런 불쾌한 말을 듣고도 내가 한참 어린 후배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런 말을 면전에서 들은 것이 제법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런 조롱조의 말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이런 식의 태도와 발화를 하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다. 반면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도 정말 모르고 한 말이거나 잘 모르고 한 게 느껴지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지 않았다. 물론 조금 실망하긴 하지만, 내가 차분히 설명하거나 설득하면 조용히 들어주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해주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지 않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 반성하고 바뀌나갈 수 있다면 인연을 끊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내게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p> <p>가*) 최대한 설득하거나 이야기해보려 한다. 물론 말이 안 통하는 상대들이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편은 아니지만, 친밀감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p>							

의 실망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국엔 소원해지는 것 같다. 나의 인생 가치관이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했다. 완전히 끌어내기까지는 안하더라도 그 관계가 변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수*) 이성 친구가 내 앞에서 혐오 표현을 한 적은 없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변한 적은 없다. 오히려 여성혐오 표현을 쓴 동성 친구와 멀어진 경험이 있다. 나의 모 동성 친구는 어떤 친구에 대해 평가하는 듯한 말을 종종 했는데, 그 말이 때때로 여성 혐오적이라 불쾌했었다. 지적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그 친구가 나를 평가하며 여성혐오 표현을 아무렇지도 사용한 기억이 있다. 그때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험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좀 멀어졌던 거 같다.

Q2. GS25 캠핑가자 포스터에 남성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포스터로 인해서 실재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에 위협을 받거나 혹은 부당한 결과를 낳았나? 그 저 책에 나온 홍성수 교수의 말대로 기분이 나쁠 뿐이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한 논란은 그들의 정체성과 실제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가령 게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들은 실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생성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의 경우 김치녀, 된장녀와 같은 프레임들이 여성을 얼마나 검열시키고 그들의 삶을 수많은 잣대로 타인에게 평가당했는가. 하지만 gs 25의 포스터는 그런 맥락을 가지지 않는다. 애초에 그러한 내연이 담겨있지 않았다. 본인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억지로 상정하고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과받아내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이게 혐오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가*) 그렇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을 특정한 이미지로 제한한다. 즉 그들 개인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어떠한 편견이 담긴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 포스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손 모양 하나에 불과하다. 대체 저 손가락 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일까? 아로 학우의 말대로 오히려 이걸 혐오 표현이라 말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휘두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소대표된 소수 남성의 말에 곧장 사과하며 포스터를 줄줄이 고치고 있다. 여성들 혹은 성소수자, 어린이 등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홍보물에는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몇이나 되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가 곧장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다.

수*) 나 역시 GS25 캠핑 가자 포스터에 남성 혐오 표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 '집단'들이 혐오 표현과 기분 나쁨을 구별

	<p>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다. 혐오는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서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포스터가 혐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려면 이 포스터로 인해 삶에 위협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s 포스터에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혐오라고 볼 수 없다. 추가로, 이러한 포스터가 혐오적이라 주장한 뒤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심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가 더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다.</p> <p>Q3.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대의 정체성 정치(인종으로의)가 대두되었으나 한국은 20대만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진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p> <p>아*) 이게 최근에 와서 20대만 젠더라는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진 것이지만 원래 우리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체성 정치가 있지 않았나 싶다. 원래 한국의 정치는 지역감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에 대한 지역감정이 항상 선거를 좌지우지해 왔다. 물론 강원도, 충청도 같은 중간 지역의 경우는 모호하긴 했지만 세대 상관없이 한국은 지역이라는 정체성 정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와서 페미니즘 이슈가 대두되고 20대라는 세대론으로 치환하여 이야기되었을 뿐인 것 같다.</p> <p>가*) 하지만 이 통계는 주목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 다른 정체성 정치로 넘어갔다는 신호탄 같다. 30대까지도 지역감정이 정치에 활용되었다면 20대부터는 그게 소용이 없다는 소리 아닐까. 당장 나만 하더라도 지역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깃해야 진보 보수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페미니즘 이슈가 기어들면서 그 판국이 뒤바뀐 것 같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그런 대립 구도로 향하였고 20대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정치 방향성이 바뀐 것 같다.</p> <p>수*) 아로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정체성 정치가 있었는데, 20대가 최근 이슈로 부상한 거 같다. 다만 20대의 정체성 정치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20대의 관심사가 젠더, 페미니즘으로 쏠려서도 있지만 20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p>
<p>활동 사진</p>	

2022년 5월 4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2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 장 소 : 줌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20대 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장. “그런 게 페미라면 난 페미야” - 4장. 성범죄 위험을 실제보다 과장한다고? - 5장.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꿀 ‘젠더 갈등’ <p>[토의 내용 요약]</p> <p>각자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고 싶은지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와서 토론하였음. 젠더 문제와 세대론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에 대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음. 책에 나온 내용 중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기사를 찾아보며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짐.</p> <p>[토의 내용]</p> <p>Q4. 젠더 문제와 더불어 대두되는 세대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필요할까?</p> <p>가*) 아무래도 젠더론과 더불어 고민해야 할 논의 중 하나가 바로 이 세대론 같다. 이번 대선에서 젠더론이 크게 대두된 것과 더불어 세대에 대한 이야기 즉, 청년과 기성세대의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청년 세대는 또다시 젠더로 인해 갈라진 것처럼 프레임화 되었다.</p> <p>아*) 아무래도 우리가 다음으로 선정한 책 ‘그런 세대는 없다’를 읽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더 명료해질 것 같긴 하다.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거기서 하겠지만, 우선 젠더 갈등은 세대적 담론으로 등장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제시해 보았다. 가운 학우의 말대로 청년 세대가 젠더로 인해 남, 녀 둘로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프레임화 되어있다. 나는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20대 여성은 강한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정도가 높고 20대 남성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듯 이러한 페미니즘 성향을 보이는 20대 여성은 대학에 다니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젠더 갈등의 선두에 선 20대 여성들이 모든 20대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고졸, 중졸, 혹은 노동자, 저소득층</p>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다른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단순히 남,녀의 단순히 이분화된 대립 구도로 그려지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 든다. (물론 20대 내의 젠더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보다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맥락이다!)

가*) 그렇다. 이 지점이 가장 걸린다. 물론 젠더 갈등은 현실이고 분명 큰 함의로써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게 다양한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내 주변만 해도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입장도 환경도 완전히 다르다. 단순히 20대 하나로 통치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이해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세대나 젠더 하나만으로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고 하나로 뭉개 표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수*) 세대론에서는 정체성이 몇 개의 범주로 나뉘지지 않고 보다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야 할 거 같다. 또한 우리 세대와 부모 세대 같은 이분법적인 이야기보다는 각자의 세대 안에서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주변의 경우에도 같은 '세대'라도 가족들에게서 받는 지원에 따라 알바를 하나, 인턴을 하나, 휴학을 하나, 아니면 바로 일에 뛰어드냐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같은 세대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간과되기에 이런 부분을 경계하며 분석해야 할 것 같다.

Q5. 사회 신뢰가 낮을수록 페미니즘 지수가 높고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페미니즘 지수가 낮은 현상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아*)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항상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강남역 살인 사건을 생각해보자. 페미니즘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강남역 살인사건의 핵심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죽을 수도 있었다 라는 것이었다. 즉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그것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게 엄연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계속해 이야기하였지만, 공식적인 경찰 측 발표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결론이었다. 여성 혐오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이기에 살해당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걸 외면함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페미니즘은 그 반동으로 더 거센 물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나의 안전과 권리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보장 해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쟁취해 내기 위해 페미니즘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 사회 신뢰는 사회적 안정감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 신뢰가 낮은 집단의 경우 보편적으로 사회적 안정감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인권

	<p>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회적 안정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사회 신뢰가 높은 집단) 인권 운동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지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p> <p>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놀랐다. 사회 신뢰와 페미니즘 지수에 대해 연관 지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사회 신뢰도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리 낮지 않지만,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편이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다. 차별의 경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안정감을 얻지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졌겠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믿음과 사회적인 안정,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p> <p>Q6. 이준석 현상과 같은 갈등만 강조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벗어나 어떠한 해법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까?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p> <p>가*) 현대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프레임화하고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경쟁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언제까지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 이 싸움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싸움들뿐이다. 우리는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p> <p>아*) 맞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집단은 이분화하고 거기서 계속해 의미 없는 싸움만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대라는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기득권이다. 사회의 모든 이권을 잡아, 쥐고 있는 거대한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실재하는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더욱 핵심적인 것에 접근해야 한다. 겉에 나타나는 현상만 겉핥기로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누구와 싸울지, 누구와 연대할지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할 것이다.</p> <p>수*) 이준석과 같은 특정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에,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본 대부분의 갈등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갈등이 아니라 비기득권층 간의 갈등이다. 우리의 갈등과 싸움은 잃은 것들만 가득하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p>
<p>활동 사진</p>	

2022년 5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3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20대 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꿀 '젠더 갈등' - 6장. 20대 여자 부동층이라는 신세계 - 7장. 20대 여자 vs 20대 남자 <p>[토의 내용 요약]</p> <p>2부 내용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아서 두 차례(5/18, 5/25)로 나누어 이야기하기로 함. 이번에는 책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음. 또한 무슨 내용으로 토론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어 보았음. 현재 언론의 역할을 성찰해봄과 동시에, 안티 페미니즘의 시초는 어디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눔.</p> <p>[토의 내용]</p> <p>Q7. 언론의 균형 있는 접근과 균형 있는 소개는 어떤 것들일까?</p> <p>수*) 일단 언론에서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사나 한쪽 입장만을 담은 기사를 보도하는 것에 유의해야 균형 있는 소개가 가능할 것 같다. 현재 언론은 위의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좀 더 다각적인 시선에서 파악하도록, 보도할 때 편향적이지 않도록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쪽 입장만을 담은 기사의 예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 기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전장연이 이동권 시위를 왜 하느냐는 '맥락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히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도와줘야 한다/ 그래도 이건 민폐이다'로 나뉘어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결국에 이러한 언론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방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에 불과하다.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담는 것이 현재 한국 언론에서는 필요할 거 같다.</p> <p>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담자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언</p>							

론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도되는 느낌이다. 언론의 균형 있는 접근과 소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지역 이슈 같은 경우에도 밀양 산불 등과 같은 기사들은 적게 보도되고, 서울 지역 같은 수도권 지역 이슈만 보도되는 경우를 보았다. 이러한 편향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지역, 인종, 계층, 성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객관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그 사건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강조하고 싶다.

(아*) 요즘의 언론은 알맹이는 없고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대결하는 느낌이다. 그걸 소비하는 독자들도 비판점 없이 단순히 자극적인 부분만을 읽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번의 젠더 이슈가 불타오른 것도 언론이 부채질을 한 경향이 있다고 본다.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겪는 실질적인 고통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이들이 분노하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담아 나르고 있다. 왜 분노하는가를 담고 있지 않고 그저 분노의 한 장면만 자극적으로 퍼 나르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저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은 이제 왜? 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사회적 이해를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분적인 모습만 가져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다양한 입장을 담은 균형 있는 소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Q8. 안티 페미니즘은 20대 남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남성으로의 확산일까, 실제 일상생활에서 더욱 보편적인 이슈가 되는 것일까?

가*) 어렵다. 사실 둘 다라고 한다면 둘 다가 될 수 있겠고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통계 결과를 보면 모든 세대를 통한 남성들이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고 나와 있다. 책에서는 이게 단순히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남성 문화가 가지고 있던 여성혐오 문화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모두가 맞는 말 같다. 무어라 확실히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아*)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떻게 생각해봐도 다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모호하고, 드러나지 않은 은은하게 깔려있는 여성혐오 문화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인식이 되는 것 같다. 예전에 나 포함 친구 셋이서 각테일 바를 갔는데 전에 가게 리뷰를 ‘페미’들이 써놔서 고생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그걸 여자인 우리들한테 뻔히 물어봤다는 건 일종의 사상검증이기도 했겠지. 페미니즘 이슈 이전에는 전에 김치녀/된장녀가 다녀간 적이 있다는 식의 말로 우리를 검증하려 들었을 것이다. 결국 표현의 방식이 변경된 것 같기도 하다. 어찌 되었든 여성은 평가당하고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p>그냥 이제는 된장녀/김치녀가 아니라 너 페미야? 로 단어가 변경된 것이리라. 안티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더 가시화되고 선명해지면서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안티 페미니즘적 분위기는 이전에도 팽배했다. 페미니즘 담론이 더욱 가시화되고 커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던 여성혐오 문화를 확실히 드러내고 들쭉시면서 확연히 보이게 되었을 뿐. 원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있던 혐오 문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니 보편적인 이슈가 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p> <p>수*) 나는 안티 페미니즘이 20대 남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더욱 보편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gs포스터 사건이 이미 충분한 예가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페미니즘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20대 남성의 안티 페미니즘 혐오 정서가 강해져서 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뭐가 되었든 같잖다. 아로님이 말씀하신 “페미 검증해보자” 의미를 담은 말을 사람의 면전에 하는 20대 ‘일부’ 남성 이야기가 최근 많이 들려온다. 이전에는 단순히 성별로 나누어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에 그쳤지만, 요즘은 그 수위가 세진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한 저항이 강한 건, 그만큼 페미니즘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걸 의미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티 페미니즘적인 발언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게 된다.</p>
<p>활동 사진</p>	

2022년 5월 18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4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20대 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장.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꿀 '젠더 갈등' - 6장. 20대 여자 부동층이라는 신세계 - 7장. 20대 여자 vs 20대 남자 <p>[토의 내용 요약]</p> <p>2부 내용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아서 두 차례(5/18, 5/25)로 나누어 이야기하기로 함.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토론하고 싶은지 질문을 추가로 준비해와서 토론하였음. 페미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어떤 것이 있는지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으며,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함.</p> <p>[토의 내용]</p> <p>Q9. 남성의 경우 기혼 경험이 안티페미니즘을 약화하고, 여성의 경우 기혼 경험이 페미니즘을 완화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p> <p>아*) 결혼이 완화된 게 아니라 애초에 페미니즘 지수가 높은 남자, 지수가 낮은 여성이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보인다. 나에게는 친오빠가 있다. 직업이 경찰인데, 여경에 대한 혐오론적인 논의가 대두되었을 때 일반화를 당한 여경들이 참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겠다고 그들을 공감하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칼을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사람을 두고 도망친 여경은 그 개인의 문제인데 마치 여경 전체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우리 오빠는 내가 겪는 차별의 경험을 연결 지어 다른 여성들의 부당한 처사에도 종종 생각해 보는 편이다. 그리고 친오빠는 내년엔 결혼을 한다. 나는 결혼의 비결이 이러한 태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페미니즘에 적대적인 사람이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사이까지 가기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결혼이 완화된 게 아니라 애초에 페미니즘에 온화한 태도일수록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p> <p>수*) 나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 여성의 경우 기혼 경험이 페미니즘을 완화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살아가면서 페미니즘에 더 우호적으로 될 것 같다. 서로 다른 성별이 결혼한다는 것은, 직접 결</p>							

에서 그 차별의 경험을 마주하고 함께 겪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남성의 안티 페미니즘의 약화가 되었을 것 같다.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 후에 페미니즘 지수가 약화 되었는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페미니즘 지수가 약한 여성이 결혼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가 어려운 거 같다.

가*) 수치가 세대론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기혼한 세대는 비교적 나이가 있다. (우리나라 결혼 평균 나이가 30대쯤이니까) 여성의 경우 특히 30 이후로는 원래 페미니즘 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러니 기혼이 기준이 아니라 나이가 기준. 즉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동의한다. 이 조사는 10년이나 20년에 걸쳐 같은 사람은 조사한 게 아닌 걸로 안다. 즉 미혼은 최근 2021년 기준으로 20대 여성 (페미니즘 지수가 높은 집단), 기혼은 현재 결혼한 30대 여성으로 조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기혼과 미혼의 문제가 아니라 가운학우 말씀대로 세대론적인 경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 가운님과 아로님 말씀대로 이러한 그래프는 연령의 영향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나오듯, 이는 연령, 학력, 자산, 젠더, 혼인 여부를 통제한 뒤 젠더와 혼인 여부 교호작용을 포함한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따지기 전에 결혼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페미니즘 인식 변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표현을 약화시킨다, 완화시킨다고 사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반화 같다.

가*) 그렇다. 표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페미니즘이 약화된다니? 방향성의 변화나, 보다 교차성을 추구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기혼을 기준으로 단순히 페미니즘이 약화하였다는 식의 표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Q10. 본 조사에서는 자녀의 성별도 부모의 페미니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의 성에 조응(일치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어머니는 자녀의 성과 반대 방향의 영향을 받았다. 이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 차별과 혐오는 번지기 쉽지만, 페미니즘과 같은 여성주의·사회적 운동은 전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반 페미니즘 성향(=페미니즘 지수가 낮음)이 강한 남자 자녀 집단은 보편적으로 혐오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자 자녀집단에 영향을 받은 남자 부모도 이에 조응하여 나온다. 반면, 친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여성 자녀 집단의 여자 부모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

	<p>에 조응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도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여자 자녀가 있는 남자 부모와 남자 자녀가 있는 여자 부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통계자료만 가지고는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p> <p>가*) 수연 학우 말대로, 나 또한 이 통계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페미니즘 지수로 파악해보면 남자 부모의 경우 '여자 자녀> 남녀 자녀> 남자 자녀' 순으로 높고, 여자 부모의 경우 '남자 자녀> 남녀 자녀> 여자 자녀' 순으로 높다. 남자 부모의 경우 여자 자녀에게 받는 영향력이 더 크고, 여자 부모의 경우 남자 자녀에게 받는 영향이 더 크다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p> <p>아*) 일단 남자 부모, 여자 부모라는 단어보다는 남자 보호자, 여자 보호자라는 단어 선택이 더 나을 것 같다.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고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웠으며 보호자라는 단어가 혈연중심 및 정상 가족 이미지를 탈피한 단어이기 때문에 보호자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다. 사실이 통계만 보고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렵다는 것에 격하게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자 보호자의 경우 여자 자녀가 있을 때 마냥 자기 일이 아닌 것 같고 자녀가 겪는 차별이나 부당함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성향이 나타났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여성 보호자의 경우 오히려 페미니스트인 딸과의 충돌이나 갈등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다. 차별의 경험은 공통될 수 있지만 여성 보호자는 그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나 보수적인 태도를 통해 자녀의 삶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통계적 수치나 연구 결과 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일종의 추측 정도에 머물러야 할 것 같다.</p>
<p>활동 사진</p>	

2022년 5월 25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4

북클럽 팀명	프롤레타리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8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최**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그런 세대는 없다 - 제1장. 세대, 무엇이 문제인가? - 제2장. 불평등 시대의 청년</p> <p>[토의 내용 요약] 세대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대립구조에 대해 비판해보면서, 청년세대의 삶이라 하더라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또한 세대론 담론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적인지 알게 되었음.</p> <p>[토의 내용] Q1. 기성세대는 진정 기득권일까? (과반수 이상이 저학력, 비정규직 등등인 통계적인 사안을 고려하였을 때.)</p> <p>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다. 나 역시 세대론에 입각하여 기성세대는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를 세대론으로 치환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기성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대학교를 나오면 무조건 대기업에 모셔간다고 하는 걸 정말 복 받은 세대구나. 라고 막연히 받아들인 것 같다. 사실은 그 당시의 대학 진학률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지금과도 비슷한 비율일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간과하고 깊게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기성세대에서도 기득권인 집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성세대가 기득권이라기에는 이것 역시 정체성을 일반화하는 것 아닌가. 애초에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력이 나이만으로 단순히 결정될 수 있던가. 책을 읽으며 많이 부끄러웠다.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시점에서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했다.</p> <p>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들 당연히 돈도 더 많고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거로 생각했는데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장님, 이사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다들 나이도 좀 있는 사람들로 그려지기도 하고, 기사나 여러 글을 봐도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와 달리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당장 우리 부모님 이야기만 떠올려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p>							

고 적은 임금을 받고 살았던 것 같다. 호의호식하고 살진 않았다. 우리의 부모님들 몇몇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인 중년 세대로 아주 남아있다. 가령 우리 이모 같은 경우 청소노동자인데, 이모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인 중년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고, 많이 부끄러웠다. '기성세대는 기득권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나 역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 기성세대는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득권은 기성세대'라는 생각은 '비기득권 청년세대'로 연결되어, 두 집단의 대립구조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소득과 자산, 고용형태, 학력에 따라서 상이한 계층들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너무 안일하게 당연히 기성세대는 기득권인지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기성세대는 기득권이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되짚어 보았는데, 그러한 담론을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보았던 거 같다. 이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가로,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부모 세대의 대학 진학률이 아주 낮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나 자신에 많이 놀랐다. 나의 세대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 부모 세대도 당연히 대학 진학을 했겠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내 부모들은 다 학력이 높은 편이라 그랬던 것 같다. 과거에 우리 집은 잘사는 편에 속했었는데, 어찌면 기성세대는 기득권이라는 인식은 나의 부모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설령 우리 부모가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성세대여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소득이나 다른 것들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야겠다.

Q2. 세대론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왜 문제적인가?

아*) 계급의 문제, 노동 문제 등이 가장 큰 것 같다.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세대론은 우리가 겪는 경제 불평등과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를 지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런 불평등이 심화하였던 정권 썸부터 이러한 키워드가 부상하였다고 하니 세대론을 통해 복잡한 여러 부분을 일반화하여 지워버리고 있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말은 아닐 것이다. 기성세대에도 비정규직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이 정규직인 것처럼 표현하여 화살을 돌리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나이 가릴 것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임에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 탓인 것처럼 비난을 해왔다.

수*) 세대론의 과잉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여기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는 경제, 노동, 복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정 세대를 비판하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다. 가령 나 같은 경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알바하고 있다. 반면 나의 친구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원과 공부를 병행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다. 내 친구도 나도 똑같은 20대인데, 같은 세대니까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둘은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데, 같은 세대라고 해서 함께 묶고 세대론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놓치는 문제들이 많을 거 같다.

가*) 아로님과 수연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불평등 문제들이 많이 지워지기에 세대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부분에서, 세대론을 계속 강조하게 된다면 특정 세대를 공략하는 정책들만 나오고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주목되지 않을 것이다. 세대론적 접근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에 지역 거주자로서 지역 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20대로서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정책이 있지도 않다. 정말 이걸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대론 관점이 무용하거나 유해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세대론적 인식이 퍼져있기에 이러한 인식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Q3. '공정성'은 진정으로 청년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가*) 이 책을 읽으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자주 말하는 청년 세대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왔다. 막연히 떠올리기로는 비정규직이고, 알바를 많이 하고, 취직이 안 되고, 연애 등을 포기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막상 공항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는 정규직들이 청년세대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했다. 대표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은 그때그때 원하는 담론에 따라 변형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공정성이란 키워드도 그렇다. 모든 청년 세대가 이러한 공정성을 요구할까? 고졸이라고 해서 승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청년 모두인 것처럼 그려지는 것일까? 생각해보거나 역시 학력과 상관없이 정규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런 청년 세대의 공정성 키워드가 정작 실재하는 청년인 나와 다른 이야기이다.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청년의 키워드라기에는 확실히 특정 집단만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아*) 공감한다. 나도 학력과 승진 등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학력은 계급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잘사는 집안 아이일수록 좋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계급론의 확장일 뿐이라 생각한다. 나도 지역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게 내 경제적 배경 등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이라. 나는 그런 걸 공정성이라 여기지 않는다. 책에서 제시된 공항에서의 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립이나 노동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가 돼야 했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청년은 지워내고 정규직인 청년을 내세운 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세대를 이용하고 있다는

	<p>생각이 들었다. 당장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 모인 우리 셋도 생각이니 입장이 판이한데, 어떻게 그 수많은 청년세대의 생각이 같거나 비슷할 수 있을까? 청년 세대 안에서도 갈리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p> <p>수*) 공정성은 청년의 키워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 책을 통해 '청년'이 하나로 묶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앞에 말하였듯이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밖에 것들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을 청년으로 묶어서 청년들은 공정성에 관심이 만지라든지, 공정성에 대해 예민하지 않은 등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년의 공정성 담론은 공정성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배제한다.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러한 공정 담론이 왜 문제적인지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두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공정 담론은 인서울 대학 남성들의 목소리만 주로 대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담론은 인서울과 같은 좋은 대학에 가고 졸업한 뒤에,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정규직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 '계층 상승 사다리'를 확보하는, '기회 확보 중심'의 공정성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p> <p>가*) 동의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성 담론이 아닌, 더욱 넓은 불평등 문제를 아우르는 담론이 필요하다. 수연님이 본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담론은 기회 확보 중심의 논의로만 이어지게 된다. 우리의 논의는 소득과 자산이 사회적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어져야 하며, 흔히 '좋은 대학'으로 불리는 인서울 대학에 나와야만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집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p>
<p>활동 사진</p>	

2022년 6월 1일

참가자대표 : 김**